

차 '쌩쌩' 달리는데...남구청 앞 '도로로 내몰리는 시민들'

불법 주정차로 좁아진 대기 공간...“위험 느낌적 많다” 스트리트 푸드존 개장·지하철 2호선 공사 겹쳐 위험 ↑

“차량들은 쌩쌩 달리는데도 서있을 자리가 비좁다 보니 위협을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광주 남구청 인근 횡단보도 위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민들이 인도로 내몰리고 있지만 남구는 이에 적극 단속을 나서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횡단보도 바로 옆에 위치한 스트리트 푸드존이 내달 정식 개장하지만 주차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혼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2일 오전 남구청 앞 횡단보도 인도. 녹색불이 켜지길 기다리며 서있던 시민들은 대기하던 차들이 신호를 받고 출발하자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물러선 시민들 바로 뒤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 자칫 차와 사람이 충돌할 위험이 있어 있다.

남구청 건너편 횡단보도에는 시민들이 대기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해당 공간에 불법으로 주정차 하는 차량으로 인해 오히려 보행자가 도로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주차된 차로 인해 좁은 공간에서 머물러야 했다. 자전거를 탄 시민은 애초 횡단보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 뒤에서 대기했다. 우회전 차량이 코너를 꺾으면서 인도를 넘어설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비좁은 대기 공간은 언제든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남구에 따르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던 한 시민은 “구청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 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대기할 때마다 항상 차가 주차 돼 있었던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남구청 건너편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은 280m 가량 떨어진 백운2동 공영주차장이다. 하지만 해당 주차장에는 차량이 8대밖에 수용되지 않아 인근에



22일 정오께 남구청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인근에 주차된 차로 인해 위대롭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김다인기자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어 불법 주정차가 성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된 횡단보도 철제 가벽에는 지난달 남구청에서 게시한 ‘불법 주정차 구역’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남구는 해당 공간을 엄연한 인도로 판단하고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 이동식 차량을 통해 상시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날 오전 10시께 해당 공

간에 머물러 있던 차량은 오후 2시께가 넘어서도 여전히 주차 돼 있어 단속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옆에 위치한 스트리트 푸드존이 내달 1일 개장할 경우 더

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트리트 푸드존은 예산 21억원을 투입한 백운광장 활성화 사업의 첫 번째 단계다. 특히 의식부스와 문화예술 부스 등 총 40여개 부스로 구성돼 광주의 문화 관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스트리트 푸드존은 아직까지 다수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까지 장기화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 역시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구는 스트리트 푸드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모아산부인과 방향 공터와 푸드존 운영 본부 방향에 40여대의 차량이 주차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140대 가량의 차량을 수용할 공용주차장 설립 계획은 사유지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남구는 현재 토지 소유자와 행정 심판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주차 부지를 확보해 내년 2월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 “남구 시설팀과 협조해 해당 공간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노란선을 긋거나 시설물을 박는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인기자

전화기 버튼만 ‘똑똑’...말없이도 112신고 가능해진다

경찰 “말하기 곤란한 상황 농민 가정폭력 등 피해자 고려”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으면 전화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폭행 등을 당했을 때 피해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기를 ‘똑똑’ 치거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112시스템이 도입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위급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똑똑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신고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르는 상황 등에서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12로 전화한 뒤 상황실 경찰의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를 치거나 버튼을 누르

면 경찰이 ‘보이는 112’ 링크를 신고자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휴대전화 버튼이 잘못 눌린 경우 등 오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문자 발송 전 신고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친다.

문자를 받은 신고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경찰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신고자 휴대전화의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처럼 꾸며 신고한 사실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실시간으로 경찰과 채팅할 수 있다.

‘보이는 112’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경찰은 시민들의 서비스 활

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를 받는 방식을 휴대전화 버튼이나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112 신고를 돕고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간 폭력 피해자의 112 신고에 담당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휴대전화 버튼이나 두드리는 소리, 역할 위장을 활용해 대응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20년 11월 경남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던 여성과 버튼음으로 소통해 구조에 성공했다. 당시 경찰은 101동부터 차례로 동수를 부르며 피해자가 해당 동에서 버튼을

누르게 하는 식으로 주소를 특정해냈다.

지난해 4월 서울 노원구에서는 늦은 밤 한 여성이 경찰에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끊거나 ‘모텔’이라고만 말해 경찰이 수상히 여기던 중 네 번째 걸려온 전화에서 여성이 “아빠, 나 짜장면이 먹고 싶어”라고 말해 경찰이 대화를 이어가며 위치를 파악한 사례도 있다.

경찰은 ‘똑똑 캠페인’을 통해 이를 하나의 신고 시스템과 대응 매뉴얼로 체계화하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이나 파트너 폭력 피해자의 경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도입 일정은 조울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식당노동자 정규직 전환하라”

법원, 항소심서 원고 승소 판결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노조가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2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업 식당 하청노동자를 파견 노동자로 인정한 판결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도급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를 주요하게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 “금호타이어 곡성식당과 광주식당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6명이 조리 및 배식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운영방식은 같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곡성식당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광주식당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식당 근로자를 역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측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다면 2차 소송과 함께 정규직 전환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최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 근로자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소속 영업사와 근로자들이 직접 메뉴를 선정하고 식자재를 구매했으며 재료 비용, 조리법 등을 포함한 작업지시서(주간 메뉴표)를 배포했다”며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다인기자

미성년자성폭행·행인폭행 10대 집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행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1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모텔에서 B(12)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길거리에서 행인 3명과 시비 끝에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다. /오복기자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 숨진 채 발견...“금전 고민”

보육원에서 성장해 금전 고민을 하던 새내기 대학생이 방학 중 홀로 지내던 기숙사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5분께 광산구 한 대학교 강의동 건

물 뒤편 바다에서 A(18)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학교 내 다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군은 지난 18일 오후 4시25분께 건물 옥상에 혼자 올라가 스스로

뛰어내렸다.

A군은 해당 대학에 합격한 올해 초 보육원을 나와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를 통해 “A군이 보육원을 나올 때 받았던 지원금 약 700만원 가운데 상당 금액을 써버렸다. 금전 고민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군은 방학을 맞아 동급생 대부분이

집에 가면서 사고 당일 기숙사 방에 홀로 있었다.

그가 남긴 쪽지에는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 등 짧은 글이 적혀있었다.

추락 전 A군이 머문 강의실에서는 술병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옥근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